

광양 와우지구 개발 상반기중 보상 착수

중마동 와우마을 69만7357㎡ 개발... 12월까지 공사 발주

3738세대 1만여명 광양·여수신단 배후주거단지 구축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 12월 본격화된다.

광양시는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지난해 12월 제11회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전남도로부터 승인·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올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하는 한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평가, 학교교육 환경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9월까지 이행하고 실시계획 심사 등의 추가 과정을 거쳐 12월말에

공사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문에 위치한 중마동 와우마을 일원 와우지구 69만7357㎡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보고회 및 주민의견 청취(10회), 시 관계부서·기관 협의(23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7월 전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걸쳐 전남도 10개 관계부서와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 3개 관계기관에 와우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

발계획(안)의 당위성, 지역여건 설정 및 협의 등을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제11회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신청면적 대비 7만3462㎡가 축소된 62만4895㎡로 개발구역 면적을 결정하고, 준주거시설 용지내 어린이공원 위치를 조정하는 등 조건부로의 의결했다.

시는 앞으로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3738세대 1만9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거반이 구축돼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및

국가·일반산단 조성 등에 따른 유발 인구 수용 및 시세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 광양시 중마동과 여수시 삼일동 여수 국가산단단지간 운행시간이 10분으로 줄·퇴근이 가능한 정주생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광양 와우지구 및 마동지구가 광양·여수 국가산단단지의 배후주거기능을 담당하는 주거단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엑스포-정원박람회 상생협력 강동석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장(왼쪽에서 2번째)이 지난 2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열린 초청특강을 마친 후 순천만 정원박람회 조성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순천시는 1억원 상당의 여수박람회 입장권을 예매 약정하는 등 양 박람회 성공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다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기자 jj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가 경영 회생 등에 61억 지원

한국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허을석)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과 농지연금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농지은행 사업은 사업비 61억 원을 확보해 ▲농업경영력 재고와 영농규모화 사업(10억원) ▲과원 규모화사업(7억원) ▲부채 농가 경영회생을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사업(29억원)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매입 비축사업(13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 고흥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사업도 1억 52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농지연금 사업은 고흥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으며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한 사업으로, 농·어촌에 거주한 고흥 농업인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65~70세의 고흥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를 경영이양(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매월 25만원(1ha 기준)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금 보조금 4900만원도 지원한다.문의(061-740-1130)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고흥 풍류·풍양 등 4곳 보건 진료소 신축 이전

고흥군이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진료소 4곳을 이전 신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고흥군은 최근 동강면 죽암, 대서면 신기 보건진료소 신축, 개소하고 이어 두원면 풍류, 풍양면 풍남 보건진료소 문을 열었다.

이들 진료소는 지상 1층, 146㎡ 규모로 1곳당 3억원이 투입됐다.

건강진진실을 겸한 물리치료실, 진료실, 대기실 등 현대식 공공 의료시설을 갖췄다.

군은 올 연말까지 15억원을 들여 도암읍과 두원면 보건진료소 등 2곳과 금산면 신령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강기자 gju@

벚꽃과 함께 우주 항공축제 즐기세요

“벚꽃과 함께하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도 오세요.”

우주항공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고흥에서 우주항공축제가 오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흥만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 등 공식행사와 체험, 공연, 부대행사 등 모두 60여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고흥만 간척지에 들어선 축제장에는 우주항공홍보관, 야생화, 새우난 전시, 전통민속 생활 도구 전시 등과 모형로켓 발사체험, 모형항공기

날리기 체험, 전통 노젓기 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 마술쇼, 7080 라이브 콘서트, 풍물 한마당, 중국 기계단공연 등 14가지 공연행사와 농수산 물특관장, 향토음식점, 오리배타기 체험, 전통 활쏘기 체험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고흥만의 잊을 수 없는 장관인 8km에 달하는 벚꽃길과 7만여㎡에 달하는 유채밭, 담수호의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초청 우주이야기 등

내달 13~15일 고흥만 일대서 모형로켓 발사 등 관람객 체험

도 준비됐다.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를 비롯해 우주과학관, 국립 청소년우주체험센터, 항공센터 등 우주항공 시설이 집적화돼 있다.

고흥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3년간 축제를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우주과학 체험전’으로 축제를 다시 열고 있다”며 “고흥만의 볼거리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즐길거리를 만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강기자 gju@

전 북



김제 목조문화재 보호 민·관 소방훈련

김제소방서(서장 유영철)는 최근 중요 목조문화재인 김제시 금산면 귀신사에서 시청 산불감시요원과 문화재 관리요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체소방대의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산림화재를 예방하고 소중한 목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유영철 소방서장은 “전통 사찰지구는 모두 목조 건물여서 화재발생시 짧은 시간에 전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총연장 280km 지리산 둘레길 5월 개통

전남·북, 경남 3개도 5개 시군 연결 장거리 도보길
산림생태, 농·산촌 체험 코스... 밤재서 통합 개통식

민족 영산(靈山)인 지리산을 가운데 두고 수평으로 에둘러 걷는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둘레길’이 올 상반기 완전 개통된다. 남원시는 최근 시청에서 구례·하동·함양·산청군 관계자, 숲길 이사장 도법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둘레길’ 개통을 위한 확대협의회를 갖고 5월초 구례와 남원 경계지점인 밤재에서 통합 개통식을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지리산 둘레길’을 ▲이용객에게 지속가능한 길 ▲주민에게 자연생태 공동체의 길 ▲미래세대를 위

한 치유와 호연지기(浩然之氣)의 길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지리산 둘레길’은 남원시, 구례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등 3개도 5개 시·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거리 둘레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내에 하동과 구례구간 연결을 끝으로 환경(環形)으로 완성(총연장 280여km)돼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산림생태 체험, 휴식, 사색 등은 물론 주민들이 개발한 다양

한 농·산촌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2월말 ‘지리산 둘레길’ 16개 구간 탐방객 814명을 대상으로 1 : 1 면접방식으로 여행행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리산 둘레길’에 동행한 사람은 가족·친지(26.2%), 동호회·단체(22.1%), 직장동료(18.6%) 순으로 혼자방문(4.3%)하는 것보다 여럿이 어울려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탐방하고 있는 둘레길의 구간을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경관이 좋아서’(26.0%)와 ‘다양한 길(산길, 숲길, 마을 등)을 체험할 수 있어서’(26.1%)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전주시, 어린이 보호용 CCTV 추가 설치

전주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학교폭력·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용 90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용 10대 ▲주정차 단속용 60대 등 총 16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되는 CCTV는 오는 7

원광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 지연센터 개소식

원광대병원은 최근 전북지역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NICU) 개소식을 가졌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2.5kg 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중

군산시 향토인재장학생 22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는 오는 22일까지 2012년 전북 인재육성재단 향토인재장학생을 신청·접수 받는다.

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향토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대학 5명, 지방 소재 대학 7명, 전문대학 5명 등 총 17

정읍시 30억투입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정읍시는 올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보전, 건강증진을 위해 29억8800만원을 들여 1926명 규모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읍시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등 8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사업

지리산 눈꽃축제 3만6000명 다녀갔다

대표적 겨울축제 자리매김
10억원 이상 주민 소득 증대

민간주도로 올해 처음 열린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남원시는 “운봉읍 애항리와 운봉읍 주최로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51일간 열린 ‘바래봉 눈꽃축제’에 3만6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1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 효과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지리산 바래봉의 경우 봄에는 철쭉제, 여름에는 황산대첩축제, 가을에는 허브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올해 성공적으로 눈꽃축제를 개최, 명실공히 전국제일의 사계절 축제를 완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축제기간 빈벽체험과 바래봉 눈꽃등반대회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산악인, 많은 어린이가 참가해 겨울방학기간 어린이에게 좋은 체험과 추억을 만들어준 축제의 장이 되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고창복분자원 가공업체 3개소와 협약

피부미용 개선·기능성 음료 등 개발 추진

(재)고창 복분자원연구소와 관내 복분자 가공업체 3개소가 최근 전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주관의 ‘2012년 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에 공동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선정에 따라 고창 복분자연구소는 최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내 복분자 가공업체인 베리팜, 삼경복분자, 명경F&D와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베리팜은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개선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이너뷰티용 베리쥬

스’를 개발하고, 삼경복분자는 냉동식품 시장으로 판매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복분자 떡의 냉·해동 품질개선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명경F&D ‘복분자 추출물을 함유한 전립선 개선 기능성 음료’를 개발한다.

(재)고창 복분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총 3개 과제로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복분자의 우수한 효능이 성인 남성에 국한된다는 제한된 이미지에서 탈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유형은 ▲공공분야 ▲민간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1월 3~4시간, 주 3~4일, 근로로 1인 월 20만원을 받게 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7~10개월 정도 참여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